

- 충북경제자유구역 -
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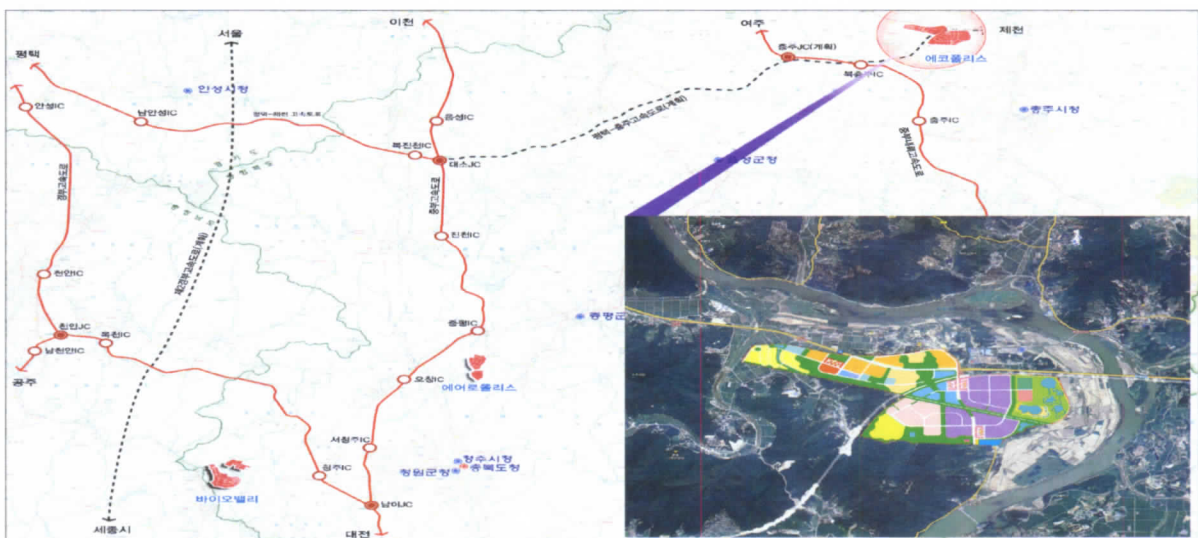
충북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

< 개발 여건 >

- 충주지역은 내륙첨단산업권(전북~대전~충북~강원)의 중부내륙권 거점도시이며, 최근 충주기업도시,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급부상
- 중부내륙고속도로(북충주IC 11km, 감곡IC 18km, → 서울 72~90km), 안중~삼척고속도로(북충주IC 11km, 동충주IC 7km, → 평택항 112km), 국도 38호선(서산~동해), 국지도 82호선 및 충북선 철도(충주역), 중부내륙선 철도(지구내 통과, 화물적하장(CY) 설치 계획)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 물류 유통산업 발전 잠재력 우수
- 인근의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의 연계개발을 통한 자동차 전장 부품 및 전자정보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최적지
- 수려한 자연경관, 온천, 남한강 호반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적지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, 장천리 일원
- 개발면적 : 4,196,416m²(127만평)
- 사 업 비 : 6,591억원(추정)
- 계획인구 : 19,900명(7,960세대)
- 유치대상 : 자동차 전장부품, 바이오 휴양관광, 환경산업, 신재생에너지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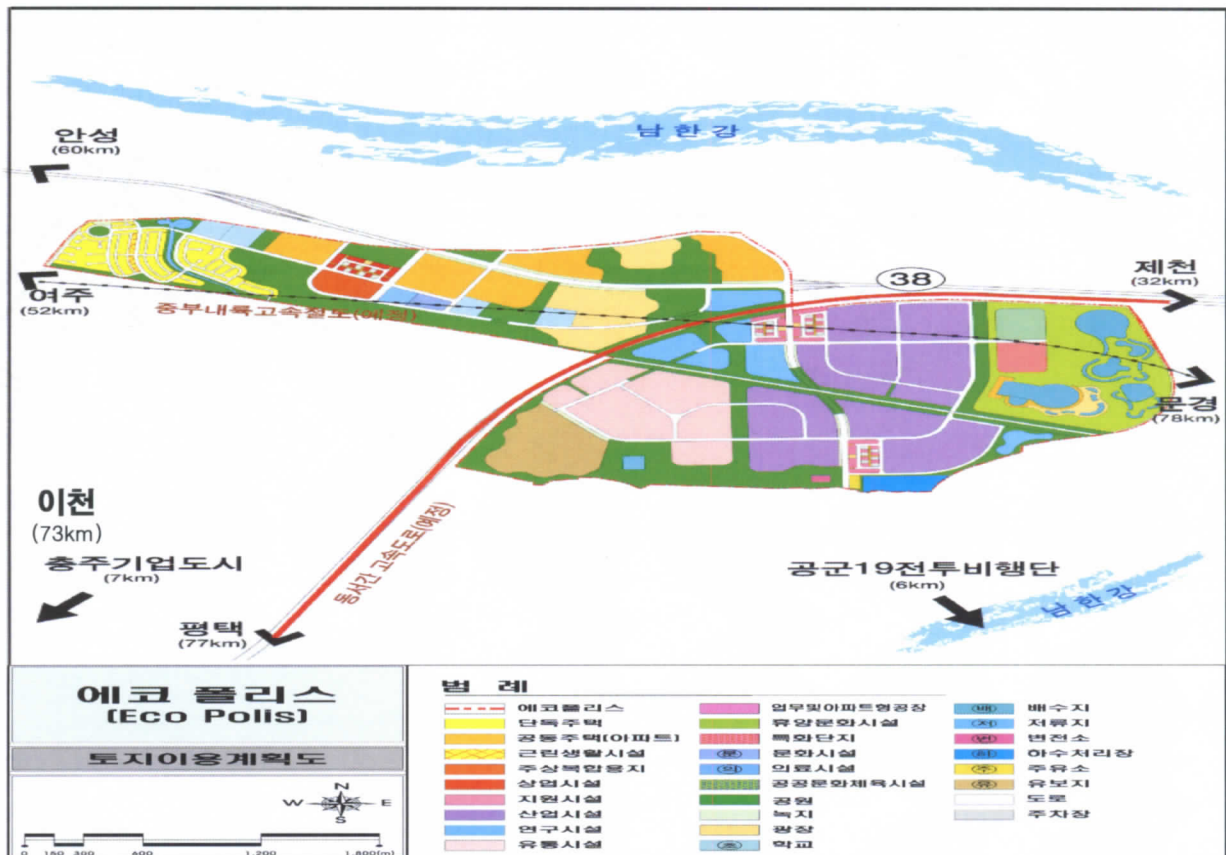
<에코폴리스 위치도>

□ 그 간의 추진경위

- '13. 2. 14 :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(지경부 고시 2013-36호)
 - 4개지구 지정면적 : 9,085천㎡(약 275만평)
 - ※ 에코폴리스지구 : 4,196천㎡(127만평)
- '13. 6. 21 :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수립 완료
 - 진입도로 L=4.1km, 4차로, 지방도 599호선 확·포장, 접속시설 5개소
- 인근 공군 19전투비행단의 항공소음, 비행안전구역 관련 국방부 협의 진행중

□ 개발구상(안)

- 도입가능 : 글로벌 기업중심의 산업복합단지(주거·산업·상업·휴양관광 등) 조성
- 개발방향
 - 자동차 전장부품, 신재생 에너지, 유통, 주거, 산업·상업·업무 지원시설 등
 - 외국인의 정주와 비즈니스, 관광·레저·문화 등 서비스환경 조성
- 토지이용계획(안)



구 분	합 계	주택건설	상업업무	산업유통	관광시설	공공시설
면 적(㎡)	4,196,416	579,836	92,461	1,132,520	535,779	1,855,820
구성비(%)	100.0	13.8	2.2	27.0	12.8	44.2

□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

○ 철도시설

- 이천~충주~문경간 전철공사(94.8km)

*1단계(이천~충주 53.3km, 실시설계 중('14. 2. 완료)) : 2016년 완공

※ **에코폴리스지구내 화물적하장(CY) 계획**

○ 주요 간선도로

- 고속도로 : 안중~삼척(음성~충주) 신설(45.6km, 2014년 준공)

안중~삼척(충주~제천) 신설(23.9km, 2015년 준공)

- 국 도 : 충청내륙고속화도로(61.3km, 충주구간 2015년 착수예정)

- 국지도 : 가금~칠금 신설(6.6km, 2014년), 북충주IC~가금 신설(4.98km, 2014년),

※ 기타사항 : 중부내륙고속도로, 국도 38호선, 국도 19호선, 지방도 599호선 인접 등



□ 사업타당성 검토의견

- 차세대 성장산업인 최첨단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을 선도할 국내·외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
 - ▶ 국내 유일의 특성화대학인 한국교통대학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친환경교통기술연구센터 등 자동차 전장부품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
 - ▶ 개발여건 대비 저렴한 조성원가로 분양전망 양호
 - ▶ 중부내륙선철도 및 중부내륙·안중~삼척 고속도로, 청주공항, 평택항 인접에 따른 물류비용 최소화, 최상의 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입지여건 확보
- ※ 수도권 1시간대,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 용이(청주공항 40분, 평택항 1시간)
 - 중부내륙선철도의 화물적하장(CY)이 계획되어 수도권과 사업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철도 접근성 양호
 - 북충주IC는 서울, 경기 등 국토 중서부지역 고속도로망(남북 제1~4축)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
 - 세종~청주~충주~강원권을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계획되어 세종시, 충청권, 호남권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
 - '14년 개통예정인 안중~삼척 고속도로 북충주IC, 국지도 82호선 북충주IC~가금, 가금~칠금 도로구간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기업유치와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낳아 산업단지 분양에도 큰 수혜를 기대
- 충주호의 풍부한 공업용수를 직접 공급 받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
- 외국인 대상 전용 관광휴양단지 개발 용이

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온천중심의 보양관광 및 수상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지구 개발과 함께 남한강 수계를 이용한 관광휴양시설 육성을 통한 정주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-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간의 연계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 발전가능성 풍부

□ 향후계획

- '13. 8. ~ 10. : 사업제안서 접수(공모기간내)
- '13. 10. ~ 11. :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선정
- '13. 12. :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
- '14년 ~ '15년 : 실시계획 승인